

모태범 또 해냈다... 이젠 월드스타로 '우뚱'



빙속 1,000m 0.18초 차 '금만큼 값진 銀' 남자 쇼트트랙 5,000m 계주 결승 진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승부였다. 12초에서 경기를 펼친 네덜란드의 스테판 그루투이스가 1분09초45를 기록하면서 중간 순위 1위로 올라선 가운데 모태범이 드디어 출발선 아웃 코스에 섰다. 16초에서 경기를 펼칠 상대는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5,000m 금메달리스트인 채드 헤드리이었다. 차분하게 준비자세를 취한 모태범은 출발 총성과 함께 재빨리 튀어나갔고, 초반 200m를 16초39에 주파했다. 그루투이스보다 0.41초 앞선 좋은 기록이었다.

기대를 모았던 망형 이규혁은 초반 스피드는 좋았지만 막판 스피드 부족으로 1분09초92의 기록으로 9위에 그치며 동계올림픽 4전5기의 신화를 노메달로 마쳤다. 또 문준(1분10초68)과 이기호(1분12초33)는 각각 18위와 36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날 퍼시픽콜리세움에서 벌어진 남자 쇼트트랙 5,000m 계주에서 한국은 조 1위로 예선을 통과하고 결승에 올랐다. 미국과 이탈리아, 프랑스와 함께 예선 1조에 속한 한국은 남자 1,500m 금메달리스트

인 이정수(단국대)를 쉬게 하고 이호석(고양시청), 성시백(용인시청), 광윤기(연세대), 김성일(단국대)을 내세웠다. 첫 주자로 나선 이호석은 선두로 치고나간 뒤 한국은 끝까지 선두를 지켜 가깝게 결승에 올랐다. 아폴로 안톤 오노가 이끄는 미국은 2위로 결승에 합류했다. 남자 5,000m 계주 결승은 27일 열린다. 쇼트트랙 여자 500m 경기에서는 이은별(연수여고)과 조해리(고양시청), 박승희(광문고)가 출전했으나 단 1명도 결승에 오르지 못해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 당차고 재치있는 모태범

“금, 은, 동 모두 따면 정말 무릎 꿇고 올거예요”
특목 튀는 개성으로 팔팔 뚱뚱 ‘신세대 스프린터’ 모태범이 제대로 발동을 걸었다.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한국 선수로는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내더니 이번에는 1,0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리고 내친 김에 1,500m에서도 메달에 도전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숨기지 않았다. 다음은 모태범과 일문일답.
-마지막 조의 데이비스 경기를 지켜볼 때 느꼈음.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갔다. ‘조금만 더 늦게 거주면 안될까?’ ‘한 번쯤 실수해 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귀냐구요? 상화가 아깝죠”

-결과를 본 느낌은.
▲초반 400m까지 다른 선수들과 비슷하거나 앞섰다. 이 정도면 동메달은 따졌다고 생각했다. 사니 데이비스가 너무 강했다. -1,500m 경기와 팀추월이 남아있는데 메달 전망은.
▲1,500m 메달은 욕심이지만 안될 것 같지도 않다. 팀추월 경기를 훈련한다고 생각하면서 욕심 없이 타겠다. 팀추월은 두 번만 이기면 은메달을 확보한다. 만약에 이번 대회에서 금, 은, 동메달을 모두 따면 그때는 진짜 올겠다. 무릎을 꿇고 올 준비가 돼 있다.
-컨디션 관리는 어떻게 하나.
▲쉬고 싶다. 일단 1,500m 경기(21일)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잘 쉬고 말겠다.
-한국에 가면 뭘하고 싶다.
▲5,000m에서 은메달을 딴 친구 이승훈(한국체대)과 서울에 가면 남들이 혹시 알아보나 걸어 다녀 보기로 했다(웃음). 진짜로 사람들이 알아보는지 거리를 걸어보겠다.
-여자 500m 금메달리스트 이상화(21·한국체대)와 사귀냐는 소문도 있는데.
▲절대 아니다. 상화가 아깝다. 상화가 그런 얘기 들으면 싫어한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열린 밴쿠버 올림픽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1,000m 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모태범이 경기가 끝난 뒤 태극기를 들고 경기장을 돌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빙속의 전설 이규혁

‘아름다운 퇴장’

4전5기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도전만으로도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다.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이자 망형 이규혁(32·서울시청)이 결국 16년 동안 이어진 올림픽 메달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규혁은 18일(한국시간) 캐나다 리치먼드 올림픽 오벌에서 치러진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에서 1분09초92의 기록으로 9위에 머물렀다. 이규혁은 앞서 16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500m에서도 1.2차 레이스 합계 70초48로 15위에 그쳤다. 남은 1,500m와 10,000m, 팀추월 등 종목에는 출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규혁은 결국 ‘노메달’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스스로도 “마지막 도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나이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한 개의 메달도 목에 걸지 않은 채 올림픽 무대를 떠나게 된 셈이다. 올림픽 무대만 5차례 밟은 긴 도전의 세월이었다. 올림픽을 치를 때마다 삼심도 했고, 은퇴 결심도 여러

번 했지만 동계올림픽 성적의 아쉬움과 책임감에 도전을 계속했다. 이규혁은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아버지 익환 씨와 피겨스케이팅 대표 코치 출신 어머니 이인 숙씨의 장남이다. 동생 이규현도 피겨스케이팅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빙상 명가’ 출신이다. 13살이었던 1991년 일찌감치 국가대표로 선발된 이규혁은 20년 가까이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국제 무대를 누비면서 한국 빙상의 상징으로 활약해왔다. 이제 서른을 훌쩍 넘긴 최고참이지만 여전히 아시아기록 2개(1,000m, 1,500m)와 한국기록 2개(1,000m, 스프린트 콤비네이션)를 보유하고 있는 간판선수다. /연합뉴스



한국선수단 주요 경기 일정

<19일> ◇ 스피드스케이팅 = 여자 1천m 결선 (오전 6시~오전 7시30분)
◇ 바이애슬론 = 남자 20km 개인 결선 (오전 6시~오전 7시30분)

(오전 6시~오전 7시30분)
<20일> ◇ 스키점프 = 라지힐 개인 예선 (오전 3시~오전 4시5분)
◇ 크로스컨트리 = 여자 7.5km·2주자 결선 (오전 6시~오전 6시50분)



‘본드걸’ 연아, 금메달 쏜다

‘금빛축제’ 동참 준비 끝

‘준비는 모두 끝났다. 이제 메달 사냥만 남았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의 선전으로 연일 ‘메달쇼’를 벌이는 가운데 피겨러 김연아(20·고려대)가 ‘금빛 축제’에 동참할 준비를 마쳤다. 김연아의 밴쿠버 공식 훈련은 21일 시작된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최종 마무리 훈련에 집중해온 김연아는 20일(이하 한국시간) 밴쿠버에 입성해 본격적인 올림픽 분위기를 적응에 나선다. 김연아는 밴쿠버에서 어머니 박희 씨와 트레이너인 오서 코치, 물리치료사와 한 팀을 이뤄 선수단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훈련장과 숙소를 오가며 대회 당일 까지 마무리 훈련을 치른다. ‘연아팀’의 걱정은 시내 속소가 일반인들에게 노출돼 자칫 과잉 응원전이나 취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IB스포츠 측은 “마음 속으로 차분하게 응원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연아의 밴쿠버 공식 훈련은 21일 시작된다. 김연아는 밴쿠버에서 어머니 박희 씨와 트레이너인 오서 코치, 물리치료사와 한 팀을 이뤄 선수단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훈련장과 숙소를 오가며 대회 당일 까지 마무리 훈련을 치른다. ‘연아팀’의 걱정은 시내 속소가 일반인들에게 노출돼 자칫 과잉 응원전이나 취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IB스포츠 측은 “마음 속으로 차분하게 응원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연아의 밴쿠버 공식 훈련은 21일 시작된다. 김연아는 밴쿠버에서 어머니 박희 씨와 트레이너인 오서 코치, 물리치료사와 한 팀을 이뤄 선수단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훈련장과 숙소를 오가며 대회 당일 까지 마무리 훈련을 치른다. /연합뉴스